1강: 들뢰즈의 존재론 개관

◆1교시: 마누엘 데 란다가 들뢰즈를 설명하기에 앞서

▲ 저자 마누엘 데 란다 소개

들뢰즈

이 사람(Manuel De Landa)은 나이가 좀 들어서는 거의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고, 들뢰즈를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렇게 들뢰즈에 대한 논문들을 속속 발표했는데 상당히 뛰어나고 명료합니다.

보통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문들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공계 쪽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썼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이 무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a thousand years of non-linear history』 아마 이런 제목일 겁니다. '비선형 역사학 천 년'이라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천 개의 고원』의 속편 격인데, AD1000년에서 2000년까지. 천 년 동안의 에너지, 자원, 환경, 역사, 경제 등을 엮어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non-linear이니까 복잡계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비선형 역사학이니까. 그 책도 상당히 흥미롭고, 두 권 다 이 사람의 주요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들뢰즈에 관한 책을 두 권을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책, 즉 존재론 책이고, 또 하나는 사회철학 책, 『a new philosophy of society』 - 새로운 사회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주로 『차이와 반복』에 나오는 존재론 이야기를 주로 쓴 것이고, 특히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버추얼리티(virtuality), 인텐시티(intensity), 멀티플리시티(multiplicity)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철학이라는 책은 '배치'에 대해서. 정치철학 또는 사회철학의 이야기죠. 둘 다 들뢰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들뢰즈 이후, after-들뢰즈를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 중의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번역해가면서, 오늘 김영범 선생님이 안 왔는데, 그분이 초고를 하고 나도 참여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해봅시다.

▲들뢰즈를 설명하는 저자의 철학적 스타일

서론이 Deleuze's world. 들뢰즈 세계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서구철학계가 보통 영미사회 구권, 앵글로 색슨의 전통하고 그리고 유럽대륙. continental philosophy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옛날 영국경험론부터 시작해서 죽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www.artnstudy.com

하냐면, 영미적인 스타일로 들뢰즈를 해설했다는 겁니다. 앵글로 섹슨 스타일로 들뢰즈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다른 연구서들과 차별을 짓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을 보면

-책 낭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식으로 노출하고 있고, 영미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철학자들이나, 여타 철학자들에게 들뢰즈의 철학이 무엇인지 해설해주려고 하는 의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미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들뢰즈의 원서들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을 이른바 포스트모던 사상가의 일종으로 볼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가 보기엔 전혀 그쪽과는 다른 유형의 철학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들뢰즈가 근거하고 있는 철학자들,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니체, 베르그송 같은 사람은 영미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 앵글로 섹슨 철학계는 보통 데카르트와 칸트를 다룹니다. 데카르트, 칸트 두 사람에게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구철학사에 흐름을 상당히 편파적으로 연구하는 편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경험론은 연구하는데, continental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와 칸트만을 다룹니다.

데카르트는 하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는 다루지 않고, 칸트는 하면서 헤겔, 니체, 베르그송은 다루지 않는 식이에요. 베르그송은 좀 하는 편이죠. 영미 철학자들이 베르그송은 제법 연구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로 철학자들 간의 중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이 책은 들뢰즈의 철학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한 것이다, 영미 철학자들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뢰즈의 서술방식으로 한 결론과 자신이 앵글로 섹슨 스타일로 완전히 재구성한 결론이 차이 없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들뢰즈는 어떤 존재론적 입장인가?

그리고 맨 밑의 문단을 보면, 저자가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들뢰즈의 철학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저자는 그의 작품에서 특수한, 즉 근본적인 측면. 즉 그의 존재론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들뢰즈 사상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중에 특히 존재론에

www.artnstudy.com

포인트를 맞추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존재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가가 리얼(real)하다고 보는, 실제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집합(entity).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individual로 해야 할지, property로 해야 할지,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를 때, 아주 넓은 의미로 쓸 때는 entity라는 말을 쓰죠. '어떤 것, 무엇'을 가장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리고 그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존재들의 유형들에 대한 사유이다.

그런데 철학사에서 아주 다양한 존재론적인 입장이 등장하는데, 이른바 ontological commitment라고 하는 겁니다. commitment를 '위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이 딱히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 입장이지요. 이 세상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개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추상적 원리가 구현된 세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ontological commitment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크게 3개로 본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들에게는 실재라고 하는 것(reality)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노트북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100%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mental한 작용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책 낭독-

물리적 인과 같은 관찰 불가능한 관계들이든, 아니면 전자(electron) 같은 관찰 불가능한 존재들이든 이론적 존재들이 theoretical entities죠. 전자, 유전자, 자기장,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 등 다 이론적 존재들이죠. 이론적 존재들이 실재하느냐 안하느냐라는 논쟁이 현대 과학철학의 아주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죠.

그것은 철학사의 무엇을 잇는 건가요? 이론적 존재들이 실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구성물이냐 라는 논쟁은 중세철학의 무엇을 잇고 있는 거죠? 보편자 논쟁이죠. 중세철학에서는 어떤 논쟁이냐면, 철수나 영희나 이런 개별자들만이 실재하고 인간이라는 종은 단지 인간이 집합으로 부를 뿐이라는 입장, 유명론이죠.

그게 아니라 인간, 개, 사슴, 동물 같은 추상적인 entity들은 실재한다.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는 '개별자보다 더 실재한다.'라고 하는 논쟁이 보편자 논쟁인데, 이것은 그 보편자 논쟁의 현대판입니다.

유전자니, 전자니, 자기장이니, 경제학의 한계효용의 법칙이니 하는 이런 것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등등. 이런 것들이 인식주관의 구성물 construct이냐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냐. 발견하는 것인지 '발명'하는 것인지. 그것이 현대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되든 간에, 다른 철학자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상들이 마음과

www.artnstudy.com

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마음에 dependent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물리적 인과 같은 관찰 불가능한 관계들이든, 물리적 인과를 우리가 본 적은 없죠. 비가 내리고 땅이 젖는 것을 보는 것이, 비가 내려서 땅이 젖는 그 자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또는 전자 같은 관찰 불가능한 존재들이든, 이론적인 존재들이 그러한 존재론적인 자율성을 ontological autonomy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입장은 주관의 mind dependent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mind independent하지만 이론적 대상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책 낭독-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찰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고, 관찰하지 못 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중심적이라는 거죠. 관찰하든 하지 않았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이 뭐냐면 realist ontology 존재론, 실재론적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입장은 들뢰즈는 실재론적 철학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른바 post-modern philosophy는 비실재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들뢰즈의 입장은 그것과 구분된다는 거죠.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란 누군지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모호한 표현이죠.

사실은 라깡(Jacques Marie Emile Lacan)도 실재론인데. 푸코(Michel Foucault)도 실재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실재론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다 실재론자입니다. 명확하게 리얼리티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리오따르(Jean Francios Lyotard)정도. 그 정도가 아마 제가 보기엔 명확하게 실존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데리다(Jacques Derrida)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데리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들뢰즈나 푸코나 라깡 같은 사람들은 명확히 실재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재론자 들뢰즈. 그렇다면, 들뢰즈의 실재론이란?

그런데 이 실재론적인 철학자들. 그러면 물어볼 게 뭐냐면, mind-independent한 리얼리티란 무엇이냐? 그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특히 들뢰즈는 일반적 형태의 실재론에서 인정하는 여러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실재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 나중에 자주 나오겠지만 동일성들이죠.

개체, 본질, natural kinds 자연 종의 어떤 보편자, 또는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법칙 등

www.artnstudy.com

등의 동일성들. 보통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실재론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실재론인데 들뢰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강하다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체동일성'이, 이정우의 개체동일성이 나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설명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흔히 일반적인 실재론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의 동일성은 그것들이 내포하는 본질에 의해 내장되며, essence죠.

-책 낭독-

자 그럼 이제 어떤 예가 나와야 하냐면, 여기 어떤 한 인간의 동일성도 있고, 노트북의 동일성도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동일성도 있고, 인간이라는 종의 동일성도 있고. 수많은 동일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동일성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기본 개념이 essence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essence라는 게 가장 전통인데, essence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이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뭔가가 필요하게 되겠죠.

본질이 아니어도 어떤 다른 것. 그게 뭐냐는 거죠. 미리 말한다면, 이 개체가 어떤 고정된 essence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dynamical process,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동일성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정향이죠. 예를 들어 플라토니즘의 경우, 질료라고 하는 것은 '생성'입니다. 생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성하는 것의 형상이 morphe라는 말로도 쓰고, paradeigma라고도 쓰고, 물론 이데아라고도 쓰죠. 이런 것, 동일성이 흐름에 부가되어서 동일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들뢰즈는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약간 도식적인 예가 되겠지만,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이차적으로 만나는 것은 individual beings 아니에요? 사람들, 나무, 탁자, 책 모두 이것이죠.

그다음 그것의 성질, 양, 등등 모두 individual beings가 기본이 되는 건데, 전통철학이라는 것은 이 individual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individual beings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편자'라던가 '형상', '본질' 이런 것. 이데아예요. 이것 individual beings를 설명하는 것.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individual beings가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나? 물질에 들어 있으니까. 질료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들뢰즈 같은 사람, 혹은 그전의 니체도 마찬가지고, 베르그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becoming에서 individual beings를 설명합니다. 현재 맥락에서는 이것을 dynamical process라고 부르는 거죠.

▲기존의 본질주의와 갈라선 들뢰즈. 어떤 초월적인 것에도 호소하지 않고 세계를 설명하다.

www.artnstudy.com

-책 낭독-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물질과 에너지를 완전히 떠난, 초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책 낭독-

그러니까. 기존의 에센셜리즘(essentialism), 기존의 본질주의와 갈라선다는 거죠. 그런 동시에 비실재론자들이 비실재론자론들도 본질을 공격하죠. 이 문장의 뜻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실재론자들도 본질 개념에 공격을 하거든요? 비실재론자들은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들뢰즈도 공격하고, 이 사람도 공격하는 거죠. 비실재론자들도 본질을 공격하는데, 들뢰즈에 대한 공격은 안 되죠. 왜? 들뢰즈도 본질, 실재론자가 아니니까. 그런 뜻입니다.

-책 낭독-

만약에 생성을 초월하는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본질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본질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비실재론자들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느냐, 사변적이지 않느냐, 멋지긴 한데."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실재론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리얼리티가 철저하게 뭡니까. 이 현실세계, 경험세계에 내재적인 거예요. immanent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것에도 호소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계를. 그게 뭔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자는 들뢰즈의 논쟁스타일, 프랑스적 스타일보다는 들뢰즈가 이야기한 핵심 내용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죠. 저자는 들뢰즈의 words보다 world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들뢰즈의 철학의 수학적 토양

▲근대 이후 수학의 동향 - axiomatic(공리적) 수학과 set theory(집합론)에 대하여

-책 낭독-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는 들뢰즈가 말하는 그 다양체, multiplicity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양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잠재성(virtuality)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요. abstract라는 말이 나왔는데, 들뢰즈가 사용하는 '추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추상적인 것, 이것, 이것, 이것을 위로 추상하는 것이라면, 들뢰즈가 말하는 추상은 아래로 추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virtuality이고, 다양체이고. 그런데 이제 들뢰즈가 다양체이론을 구상할 때 가지고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수학에 포인트를 맞추지만 수학만은 아닙니다. 리만 기하학, 베르그송의 철학, 구조주의, 여러 가지 문학작품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다른 주석서가 잘 다루지 않는 수학적 부분, 그것을 해설해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근대 이후에 수학과 철학이 맺는 관계가 두 갈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수학을 axiomatic하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공리적인 방식이죠. 공리적인 방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입장. 그리고 이 입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set theory예요. 옛날에는 algebra였지. 대수학이었는데, 지금은 set theory가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수학기초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 브로베르(Brouwer)의 직관주의, 힐베르트(David Hilbert)의 형식주의, 러셀의 실재론, 엄청나게 많은 수학 기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xiomatic한 라인, 이 라인의 오늘날 대변자가 바디우(Alain Badiou)입니다. 알랭 바디우.

물론 과정은 많습니다. 브로바키아 학파도 있고, 독일 학자들이 주로 많이 했던, 수학 기초. 힐베르트를 비롯해서 수학 기초론. 그 다음에 set theory같은 것, 공리체계들 이런 것들은 axiomatic하고 logical하고 systematical하고 analytical하죠.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렝 바디우입니다.

이 과정과 반대되는 라인이 있어요. 라이프니츠 라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differential을 연구하는 전통. 이 말, 고등학교 수학 때 언제 배워요? 미분 배울 때. 이게 미분전통입니다. 뭐냐면 차이를 생성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기울기에 관해서. 음으로 갔다가, 양으로 갔다가. 이게 뭐냐면 다 differential을 다룬 겁니다.

이러한 것은 axiomatic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limit, differential, 운동, 생성, 연속성을 다룹니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전통은 베르그송을 거쳐서 들뢰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디우와 들뢰즈가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www.artnstudy.com

라이프니츠

▲들뢰즈 철학의 수학적 핵심 - 리만기하학

지금 저자가 말하는 미분기하학. 글로는 약간 조금 다르지만. 미분기하학이 방금 이야기한 differential geometry이지요. 이 differential 이라는 말이 구조주의에서는 '변별적인', '차생적인', '차이화 하는' 등 많은 뜻인데. 수학에서는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다룬 차이와 반복 4장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 보편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전통이 있고, 말이 같은 수학이지 독일 수학 프랑스 수학 다 달라요. 물론 결론은 같습니다. 물론 수학이 결론이 달라지면 골치 아프지요. 그런데 논증방식, 창조하는 전통 등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 프랑스의 수학의 라인이 있습니다.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모르면 도무지 따라가기 힘든 argument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데 란다가 이것을 다 풀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푸앵카레

다양체들, 변환 군들, 벡터 장 들 등. 가장 이 계통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리만 기하학'입니다. 보통 'Riemann다양체'라고 합니다. 다양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질적 복속' 또는 '질적 다양체'. 번역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qualitative multiplicity이죠. 이 두 개가 근간입니다.

수학에서는 리만기하학, 철학에서는 베르그송의 질적 복속. 이 두 개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리만 기하학.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우주를 해석할 때 리만 기하학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리만 기하학이 앙리 푸앵카레(Poincaré, Jules Henri, 1854~1912)까지 갑니다.

푸앵카레의 이른바, 우주의 공간적 구조를 구하는 '푸앵카레 proble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차이와 반복』을 보면,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푸앵카레의 problem을 푼 것입니다.

푸앵카레의 problem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재미있는 것이 작년인가에 푸앵카레의 난제가 풀렸습니다. 페렐만이라는 수학자가 풀었습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 책의 서술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데, '푸앵카레의 추측'이라고 해서 이 우주의 공간구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못 풀었는데 러시아의 페렐만이라는 친구가 작년에 그걸 풀었습니다. 수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상

www.artnstudy.com

금도 거부했거나 누구 줬던가? 합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보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지요. 대단한 친구인데, 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점이 리만입니다. 여러 출발이 리만 기하학이고, 그 철학적인 짝이 바로 베르그송의 질적 복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들뢰즈식 고찰

-책 낭독-

그게 2,3장이 핵심이지요. 1장은 기본정리를 하는 거고, 4장은 약간 부연설명이고, 2,3장이 핵심입니다. 2장이 공간론, 3장이 시간론이고. 어떻게 잠재성(virtuality)으로부터, actuality가 나오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본질에 대해서 비 실재론자들의 비판은 게으르다는 거지요, 지적으로. 왜? 그건 인간 주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니까. 그것은 뭐 그리스시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고, 17세기 사람들은 사회가 변하니까 다르게 보는 게 있다. 이런 설명은 일정 정도는 설명이 되지요 분명히. 사람들의 사고가 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일정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조건 '인간이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너무 게으르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morphogenesis다. morphe가 genesis 하는 거죠.

언어학에서는 morphology라는 것이 있지요. 형태학. 건축에서도 morphology가 있지요. 형태학. morphe라고 하면 형태입니다. 즉, 형태가 탄생한다는 말이지요. 조금 바꿔 말하면 identity가 생성하는 거지요. morphe가 genesis한다는 것이니까 형태가 탄생, identity가 생성하는 겁니다.

참고로 morphe가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 morphe인데 코끼리의 morphe로 바뀐다면, 그건 뭔가요? 영어로. meta-morphosis라고 합니다. 변신은 이것이고 morphogenesis는 행태 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원형이 플라톤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상적인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이 구현된 것이고, 그 형식에 잘 맞는 것은 뛰어난 것, 그렇지 못한 것은 못한 것. 현실의 사물들은 copy물인 것이죠. 플라톤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림자이죠. 이데아의.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degree of perfection이죠. 완전도.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이데아를 전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difference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morphe라는 게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

www.artnstudy.com

서 차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성의 결핍으로, 부정적으로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즉 '이 노트북이 노트북의 이데아와 차이가 크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 사람이 드는 것 중에, 온도라던가, 압력, 속도, 화학적 density같은 곳에서의 difference들. 이런 '차이'가 뭐냐면 'intensive differences'입니다. 강도적인 차이들. 지금 현대물리학에서는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지요. 어쨌든 어떤 강도, 이 사람의 사상에서 강도는 참 중요합니다. intensity.

차이와 반복 5장은 전부가 강도(强度)론이죠. 강도론이 칸트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헤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칸트주의자 중에 헤르만 코헨(Hermann Cohen)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헨으로 갔다가, 베르그송이 강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다시 한 사람이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입니다. 그 다음에 들뢰즈. 이렇게 강도론의 계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5장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여튼, intensive differenc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dynamical process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도적 차이. 그러한 강도적 차이에 의해서 뭔가를 생성해가는 것이 뭐냐, 그게 intensive genesis입니다. 그게 바로 들뢰즈 사유의 핵심이고, 두 측면이 있습니다.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이 있는데, 2장이 공간, 3장이 시간입니다.

www.artnstudy.com